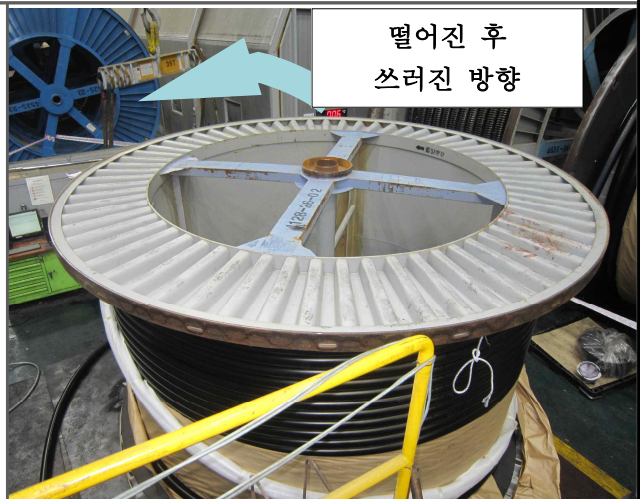


철제보빈운반 중 섬유로프 이탈로 인한 깔림

재해 개요

'18년 6월 경북 소재 케이블 생산 작업장에서 천장크레인(30/5ton)으로 철제보빈(20Ton) 양쪽 고리에 섬유로프를 걸어 이동 중, 한 쪽의 섬유로프가 걸고리에서 이탈하여 약 2m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고, 그 시각 하부를 보행하던 노동자가 깔려 사망한 재해임.

재해 관련 사진



떨어진 후
쓰러진 방향

< 관련 사진 >

재해 발생 원인

○ 보빈을 운반중인 천장크레인 하부로 노동자 통행

- 작업장 바닥에 공구함 등이 있고, 작업자 전용 안전통로가 확보되지 않아서, 천장크레인 하부로 근로자가 통행함.
- 바닥에는 건조기, 금속시스기(Sheath), 제품 등이 복잡하게 위치하고 있고, 천장크레인 운반 경로 상 근로자 보행통로를 구획하였음.

동종재해 예방대책

○ 크레인 작업 시 근로자의 출입 통제

-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,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.

○ 작업지휘자의 지휘 및 신호방법 준수

-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, 지정된 작업지휘자가 크레인 줄걸이·운반 작업 등을 지휘하여야 함.
- 작업지휘자는 작업계획서에 정한 신호방법에 따라 신호하며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함.